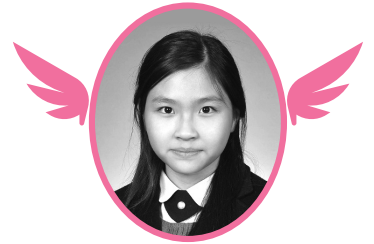




아리랑고개



김예지 · 서울 대광초등학교 6학년

‘아리랑고개’는 우리 동네에 있는 고개이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을 때는 아리랑고개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고 말하면 대부분 쉽게 이해하고 찾아온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탔을 때 아파트 이름을 들으시고도 기사님이 헛갈려 하신다면 “아리랑고개로 가시면 나와요!” 하면 기사님이 바로 이해하신다. 이렇게 아리랑고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이다.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정릉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위치해 있는 고개가 있었는데 바로 그 고개가 ‘아리랑고개’이다.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예전에는 ‘정릉고개’라고 불렀다고 한다. 정릉고개에서 아리랑고개로 이름이 바뀐 이유는 나도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곳에서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항거, 민족정신을 형상화한 영화 ‘아리랑’이라는 촬영을 해서 아리랑고개가 되었다고도 한다.

‘아리랑’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의 왹지 모를 한이 담겨

있는 노래인데 예전의 아리랑고개는 아름다운 경치와 영화가 흔하지 않던 시절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촬영한 문화가 담겨져 있는 곳이다. 아리랑고개를 문화의 거리라고도 한다. 현재의 아리랑고개는 많이 발전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아리랑 시네 센터’라는 국가에서 세운 영화관, 문화시설도 생겼다. 우리 아파트 상가 옆에는 성북구립인 ‘아리랑정보도서관’도 생겨났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근처에 ‘홍천사’라는 절이 있는데, 조선 태조 4년에 신덕왕후 강씨가 죽자 능을 정릉으로 정한 후에 세운 사찰이라고 한다. 그 근처에는 북악팔각정도 있는데, 새해에 일출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꽤 있고 나도 평소에 산책을 하러 몇 번 가본 적도 있는 곳이다. 또 버스정류장의 이름은 ‘아리랑 시네마/아리랑 시네 센터’이지만 도로에 있는 표지판에는 ‘아리랑고개’로 적혀 있으며 내가 사는 곳은 ‘아리랑로’이다.

우리 아파트 정문에 나오자마자 건너편에 주택들이 조금 모여 있는데 그 앞에 조금 높은 벽이 있다. 지금은 그냥 원색의 벽돌처럼 무난하지만 미래에는 아리랑고개의 역사를 살려 옛날 아리랑고개의 모습 등이나 우리나라의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 등 소소한 풍속화를 그려 놓고 조금이나마 벽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꿈꾸는 미래의 ‘아리랑고개’ 모습이다. 요즘에는 점점 자연이 사라지고 높은 건물들이 세워져 옛날 자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나날이 발전하고 무엇이든 빠르고 편리해지는 시대이지만 나는 아리랑고개의 차도가 조금 좁아지는 대신 북악팔각정 방향의 산책로가 넓어지고 나무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미래가 되면 인터넷 등이 눈에 띄게 발전할 텐데 영화에서 CG로만 보던 것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갈 때 오래된 아파트와 교회를 부수고 아리랑고개만의 색깔로 그때의 기술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리랑고개가 미래에도 잘 보존되어 아리랑고개의 역사를 미래의 사람들이 잘 알고, 공원도 넓히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미래에도 아리랑고개 주변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